



navien

Vol.
145
2017 AUTUMN



navien

AUTUMN 2017 Vol.145

Contents



- 04 House Of Temptation | GLEN 2961
- 10 Hobby of Honors | Handcrafted Candle
- 12 Space Environment | 타일
- 16 Trend
- 20 Life & Style | 모던 하우스
- 24 Housing History
- 28 NAVIEN Story
- 32 Tips | 가을을 맞이하는 자세
- 34 News
- 38 SNS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navien 발행일 2017년 9월 29일 발행인 홍준기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여의도동, 코아미빌딩 신관) (주)경동나비엔 사보 담당 홍보팀 박미숙 기획·디자인 및 제작 감 커뮤니티 02-6713-0999
문의 02-3489-2346 팩스 02-3489-2221

 www.facebook.com/NavienKorea

 www.kdnavien.co.kr



GLEN 2961

Design Studio: SAOTA

Location: Oranjezicht, Cape Town, South Africa

집의 내부와 외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는 이 집은 안뜰을 중심으로 디자인된 주거공간으로 남아프리카 케이프 타운에 위치하고 있어 라이언스 헤드(Lion's Head)와 테이블 마운틴(Table Mountain)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부유하고 고급스러운 주거 지역으로 분류되는 히고발(Higgovalle) 지구에 자리한 Glen 2961은 이미 거주하고 있던 클라이언트 가족의 편의와 새로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건되었다. 천연 마감재로 둘러싸인 오픈 플랜 공간이 매우 인상적인 Glen 2961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가족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프라이버시를 모두 갖춘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Glen 2961은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가 충족되는 공간이자 기능성과 심미성에 있어 완벽한 주거 공간이다. 전체적으로 정원과 매우 인접해 있는 구조로 집 내부에는 가족들이 각자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감각적인 인테리어의 내부는 콘크리트로 벽과 처마 밑면을 견고하고 깔끔하게 마감했으며, 포인트로 몇 개의 벽면은 벽돌을 사용해 러프한 느낌을 주고 내추럴한 분위기에 색다른 느낌을 더했다. 또한, 오크나무 소재를 활용한 고급 가구와 천장 포인트로 내추럴한 분위기를 극대화시켜 포근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공간으로 완성했다. 실내와 정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디자이너는 거실에 알루미늄 프레임의 커다란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했고, 거기에 투명한 유리를 사용해 개방감을 증폭시키며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1층에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주방과 거실 등의 공동 공간이 있고, 메인 야외 공간인 테라스는 쉼터와 다이닝 공간이 포함된 넓은 공간을 자랑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공간으로 구성된 집의 가장 위층에는 개인 욕실과 함께 눈을 땔 수 없는 전망을 제공하는 4개의 침실, 넓은 서재가 있어 프라이빗하고 차분한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SAOTA는 강렬하고 확고한 비전을 가진 여러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로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디자인 스튜디오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미국과 멕시코, 러시아, 호주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어 세계 곳곳에서 그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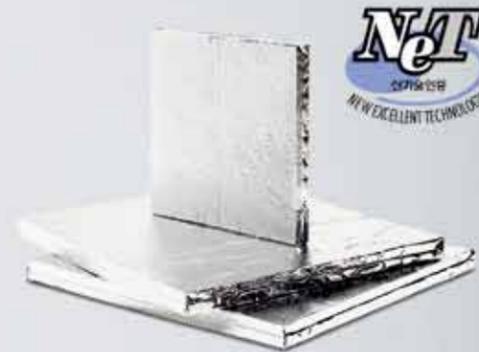


PHILIPMESDAHL, STEFANANTONI
by SAOTA



단열재의 세대교체

두껍고 낮은 성능의 기존 단열재보다
8배이상 뛰어난 단열성능을 가진
HYPER-VAC으로의 세대교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고성능 흡드실리카 진공단열재 HYPER-VAC

- 기존 단열재 대비 8배 이상 우수한 열전도율(0.004W/mK)
- 화재에 안전한 무기소재로 준불연재료의 성능 보유
- 우수한 성능과 제품 안정성으로 기술표준원 신기술(NET) 인증
- 폭넓은 사용 온도대와 30년 이상의 수명 유지

가스온수기도 경동나비엔이 뚫었다



복미 수출 1위
국가대표 보일러경동나비엔이 만들면
가스온수기도 수준이 달라집니다

- * 복미 콘덴싱가스온수기 시장 1위로 증명된 최고 수준의 온수 성능
- * 오랫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STS) 열교환기
- * 믿을 수 있는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의 A/S

[고객문의] 1588-1144 [설비업체 전용 문의] 1899-1914



HANDCRAFTED CANDLE

불어오는 바람에 팽팽히 조여있던 긴장마저 느슨해지는 요즘, 괜히 외롭게 느껴진다면 작은 촛불을 켜보는 건 어떨까? 집안의 쾌쾌한 냄새와 습기를 잡아주고 일렁이는 촛불로 신비한 분위기까지 연출해주는 캔들. 나무 심지라면 타닥타닥 타들어 가는 소리가 한층 더 분위기를 고조시켜줄 것이다. 습기제거와 탈취 효과뿐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캔들은, 비교적 손쉽게 만들 수 있어 취미로 삼기에도 좋다. 독특한 취미가 사랑받고 있는 요즘, 직접 쉽고 다양하게 캔들 제작까지 해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는 실내 공간의 분위기 전환 아이템이자 집안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소품, 인테리어용 소품으로 실내 공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 MAISON © Euro Ceramic

타일 / 질서와 정돈의 이상(理想)

타일(Tile)은 점토를 구워 만든 얇은 판이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겉이 반들반들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덕분에 청소와 관리가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런 특징때문에 화장실, 목욕탕, 부엌 등에 자주 사용되며 강도와 특징에 따라 건물의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 색상을 만들 수 있어 바닥이나 벽을 장식하는 데에 많이 쓰인다. 모자이크화(Mosaic 畫)의 재료로도 쓰이는데 교회나 성당, 건물의 외벽 등에서 볼 수 있다. 흔히 재료와 굽는 온도 등에 따라 도기질 타일, 자기질 타일, 석기질 타일, 유리질 타일 등으로 나눈다.



타일이란 라틴어 Tegula(뿩개)에서 유래한 말로 바닥, 벽, 지붕 등을 덮는 재료를 뜻한다. 불에 구워 만드는 도기 혹은 자기 재질의 특성상 내구성과 내수성, 내마모성이 훌륭해 예로부터 바닥과 벽의 마감재 혹은 장식재로 널리 사용됐다. 바빌로니아 마리의 왕궁 바닥에 깔린 타일은 기원전 1900년 즈음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도 바닥에 타일을 깔아 사용했던 것이다.

: Murina Tex © Raw Edges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타일은 바닥과 벽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단단하고 관리가 쉬운 타일 자체의 특성도 영향이 있지만, 벽과 바닥에 타일을 사용하는 것은 인류의 오래된 야망과도 관계가 있다. 타일이 무엇보다 질서와 정돈, 청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바닥에 타일을 깔아 반듯하게 땅을 재단하는 것은 땅에 대한 인공적인 지배를 의미한다. 바닥에 새긴 격자무늬를 통해 인간의 질서를 자연에 입히는 것이다. 우리는 바닥에 깔린 타일을 통해 실내와 실외를 나누거나, 실내와 실외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등 자연의 질서가 아닌 인간의 질서로 공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 WOW © Sangah Tile



현대에는 타일의 또 다른 의미가 주목 받았다. 타일이 가진 내구성과 내수성에 기인한 청결의 의미다. 타일은 단단하고 물에 잘 반응하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다. 덕분에 쉽게 오염되지 않고 오래도록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일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욕실이나 주방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욕실과 주방 모두 청결과 위생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욕실과 주방에서 사용하던 흰색 타일은 엄격한 청결함과 위생의 상징이 되었다. 20세기 들어 가정의 기능이 사회로 넘어가면서 엄격한 청결함과 위생의 상징은 욕실과 주방에서 병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위생과 청결뿐 아니라 그 상징과도 같은 흰색 타일도 함께 물려받았다. 하얀 타일로 된 벽, 도기 제품 등 현대적인 병원의 전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SPACE
environment

: Mutina Tex Process 003 HR © Raw Edges

: WALLPAPER © Jaime Hayon





피니쉬파이어 프레임 Finishfire Frame

2017 유럽 산업디자인 어워드 수상작인 Finishfire의 액자형 소화기 거치대는, 간단하지만 실용적이고도 눈을 즐겁게 하는 아이템이다. 주거 공간에서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두어야 하지만 미관상, 또는 편의상 소방방법을 따르지 않는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핀란드의 산업 디자이너이자, Finishfire의 오너인 Sanna Liimatainen은 콜럼버스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제품을 고안했고, 디자인과 안전을 접목, 가정 내 어떤 공간에도 어울릴 소화기 거치대를 출시해 유럽의 산업디자인계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Finishfire에 가로세로 160mm 미만의 그림이나 사진을 끼워 평상시에는 액자의 용도로 쓸 수 있고, 유사시에 액자 커버를 살짝 들어 올려 프레임을 열고, 두 종류의 소화 장치를 이용해 화재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다. 내장된 Fire Blanket은 파우치 아래로 꺼낼 수 있으며 요리 중 냄비나 쓰레기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살짝 덮어주면 소화가 되는 담요형 소화 제품이다. 또한 내장된 스프레이 분사형 소화기는 어린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로, 1,000v 이상의 전기화재는 물론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모의 화재는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컴팩트한 아이템이다.



finishfire(www.finishfire.com)

€ 87,90

멜로우 Mellow



멜로우(Mellow)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자연경관이 주는 아름다운 모양과 질감, 색상을 본떠 만든 테이블형 블루투스 스피커다.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쌓은 블루투스 스피커 제조 전문기업 Blueman Technology와, 젊지만 경험이 풍부한 디자인팀 Creatio Design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아름다운 외형과 훌륭한 스펙으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킥스타터와 인디고고에서 성공적으로 모금을 마친 제품이다. DC 16v의 파워 어댑터와 6,600mah의 내장 리튬 건전지로 파워뱅크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멜로우는 4시간의 완충으로 7시간 동안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테이블형 블루투스 스피커 멜로우의 나무 부분은 블랙 월넛 우드나 애쉬 우드 중에 고를 수 있고, 테이블 탑은 마이크로 패브릭으로 감싸 상호작용 버튼을 그 위에 자수했다. 간이 티 테이블이나 화분을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며, 멜로우 위에 빔프로젝터를 올린 뒤 블루투스로 페어링을 하거나 AUX 케이블을 연결해서 훌륭한 음질로 영화를 감상할 수도 있다.

Eco-Inspired Multimedia Table(igg.me/at/SEEsCzPFfLU/x/16830741)

\$ 279





삼사라 Samsara Luggage



많은 제품들이 '스마트'해져가는 가운데 여행용 캐리어도 스마트 시대에 발맞추고 있다. Samsara의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팀원들은 최근 비즈니스 여행자들의 요구에 맞는 스마트한 여행용 캐리어를 개발해냈다. Samsara Luggage에서 소개한 스마트 여행용 캐리어는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평평한 상부로 인해 비행 대기시간 동안에는 랩탑이나 터치패드를 올려두고 책상처럼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캐리어가 자신과 멀어지면 알람으로 알려준다. 여기에 USB-C타입의 충전기로 각종 기기들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은 캐리어의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킨다. Samsara Luggage의 스마트한 기능은 이뿐만이 아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가방이 열릴 경우에도 어플리케이션에서 알람이 울리며 어두운 곳에서도 짐을 찾기 쉽도록 내부공간에는 LED를 설치했다. 외장은 항공용으로 사용하는 천연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가벼우면서 튼튼할 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느낌이다. 여러 기능이 탑재된 신개념 캐리어 Samsara Luggage를 가지고 여행을 다니면 제임스 본드나 가제트 형사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Look Smart, Travel Smart(www.samsaraluggage.com)

\$ 690



That's
INNO-SMARTER

휴대, 이동, 공간의 제약을 없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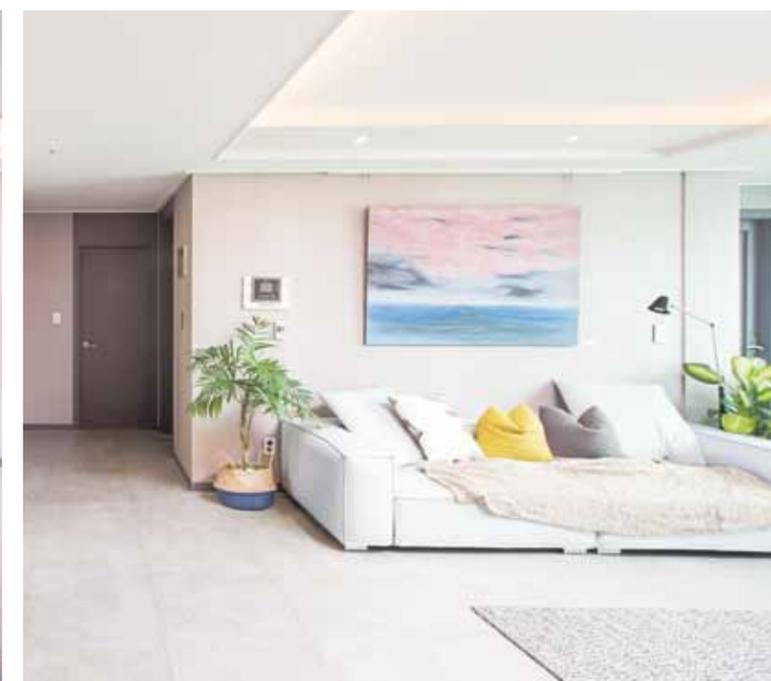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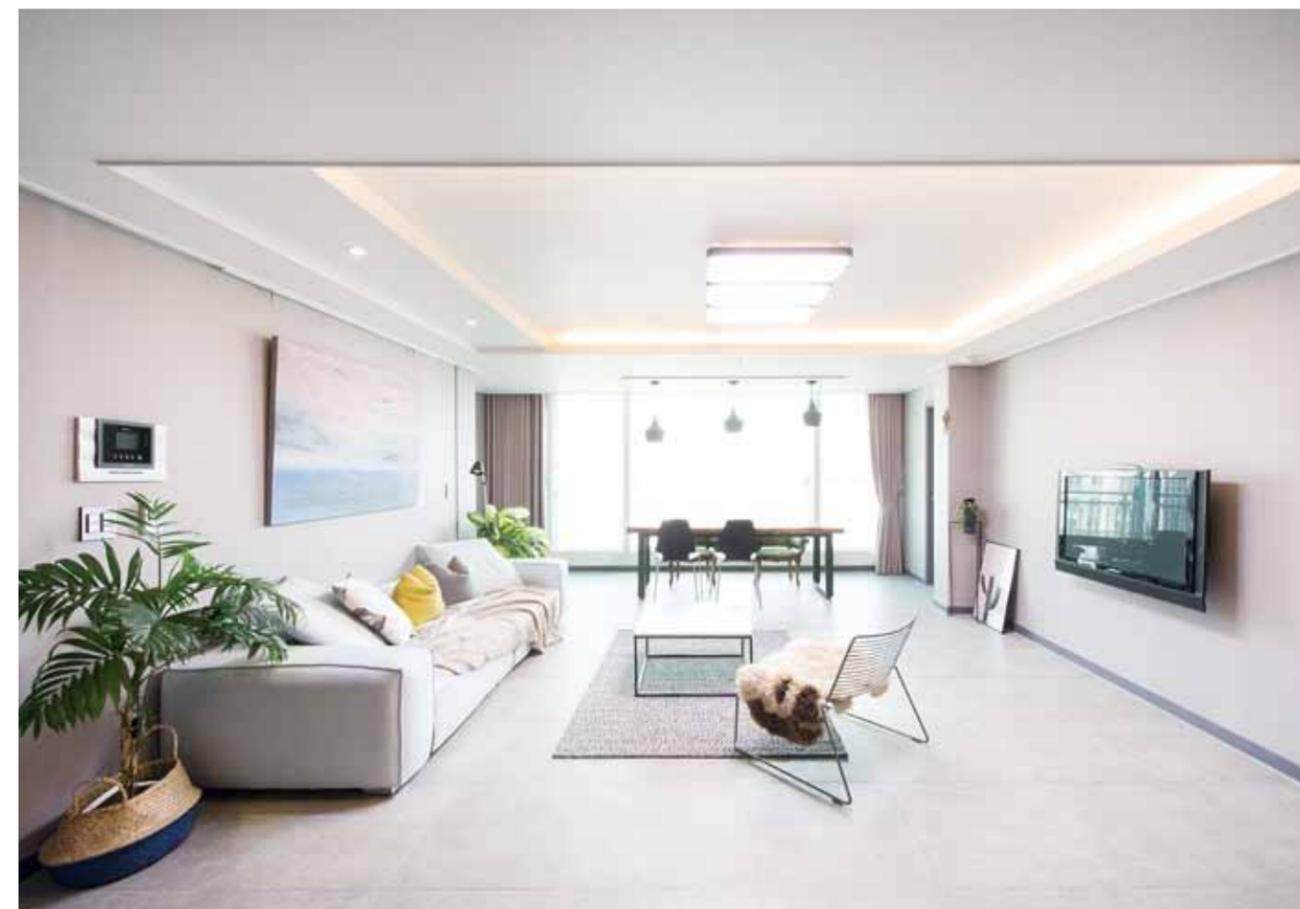


제품 구입 및 A/S 문의는 전국 어디든 1588-1144



푹푹한 설렘이 느껴지는 모던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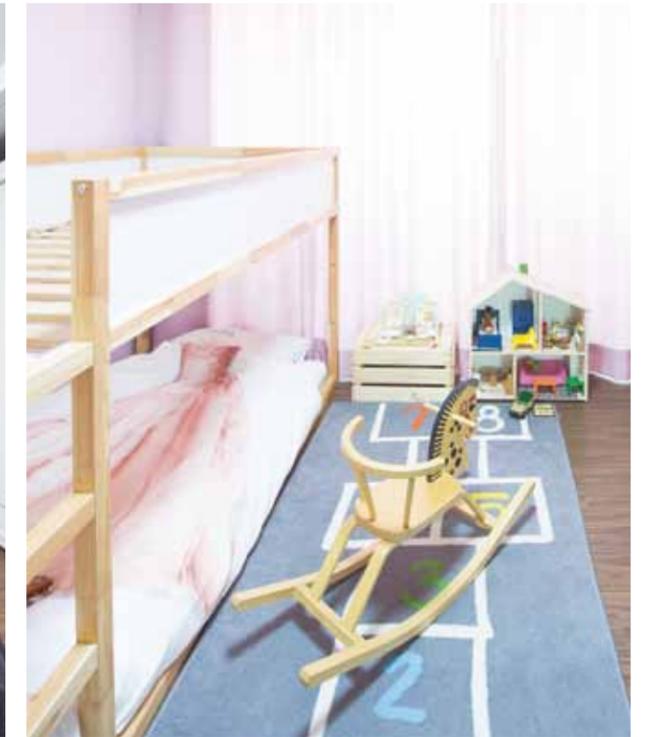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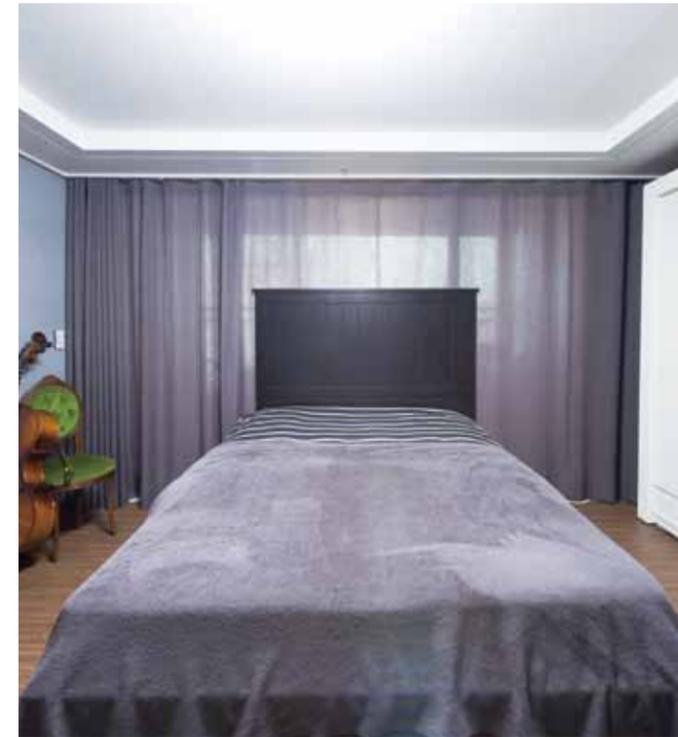
차분하고 모던한 분위기로 여느 집과는 달리
주방과 거실을 일직선상에 둔 독특한 구조로 완성했다.



거실: 종종 방문하는 친정 식구들을 위해 우드슬랩을 제작했다.
거실은 탁월한 채광과 간접조명으로 밝은 집안 분위기를 연출한다.



주방: 싱크대 상부장을 떼어내고 맞은 편에는 가전 제품 대신 수납 선반만을 설치해 가벼운 주방 공간을 완성했다.
식탁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배치해 주방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한다.



아이 방: 예진이가 직접 꾸몄다. 2층 침대는 아직 어린 예진이의 안전 차원에서 1층만을 사용한다.
안방: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의 공간과 퍼플 톤의 침실이 차분하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따뜻한 보금자리를 채워온
경동나비엔
온돌과 보일러의 만남 Ⅵ



‘쾌적한 온도’는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조건 중 하나다. 온도는 사람의 행동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인 측면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온돌을 이용한 바닥난방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실내 온도 외에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디에이터나 난로 등과 같이 실내의 기온을 높이는 난방법은 실내 공기를 지나치게 건조하게 만든다. 또한, 난방시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하고, 벽난로와 같이 실내에서 직접 불을 때는 난방법의 경우 실내 산소의 결핍, 청결 유지의 불편함 등을 야기시킨다.

온돌을 이용하면 이와 같은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열원이 실외에 있는 바닥난방을 이용하면 실내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내의 습도와 산소량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열원이 내뿜는 유해가스나 연소 후 잔여물질도 온돌을 이용하면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원래 우리의 전통 온돌은 황토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황토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구들은 가열되면 원적외선을 방출한다. 원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전자파의 일종으로서 열전달이 빠른 특성 때문에 온열치료 등 건강요법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온돌의 국제적 명칭은 'Ondol'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온돌문화의 종주국이라는 사실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다. 김치와 더불어 온돌은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서의 위상과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최근 2008년 3월 중순경 국제표준화 기구(ISO)가 한국의 온돌관련 7개 국제표준안을 채택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다. 온돌문화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러한 조치에 대한 후속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정부, 학계 및 관련업계에서 이제는 온돌문화 정착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상황이다.

다음 호에 계속



온수의 힘을 믿으세요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더 따뜻하고 쾌적하게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의 분리난방 온도제어
좌/우 온도를 각각 1℃까지 세밀하게 조절 가능한 분리난방 기술로 시로가 원하는 최적의 온도에서 쾌적한 수면을 즐기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경동나비엔의 안심 서비스
365일 24시간 행복나눔 콜센터 1588-1144
본사 직영 서비스 센터의 방문 A/S



다양한 라인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리미엄 매트
1mm 초슬림 두께와 80m 물길로 배김 없이 구석구석 따뜻한 슬림 매트 매트리스 폼로 침대와 거실 모두 사용 가능한 폭신한 쿠션 매트



물이 주는 온기로 걱정 없이 안전한 나비엔 온수매트
전기 열선이 없는 매트부와 전자기장환경인종(EMF)을 받은 보일러부로 전자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EQM 571



EQM 550



EQM 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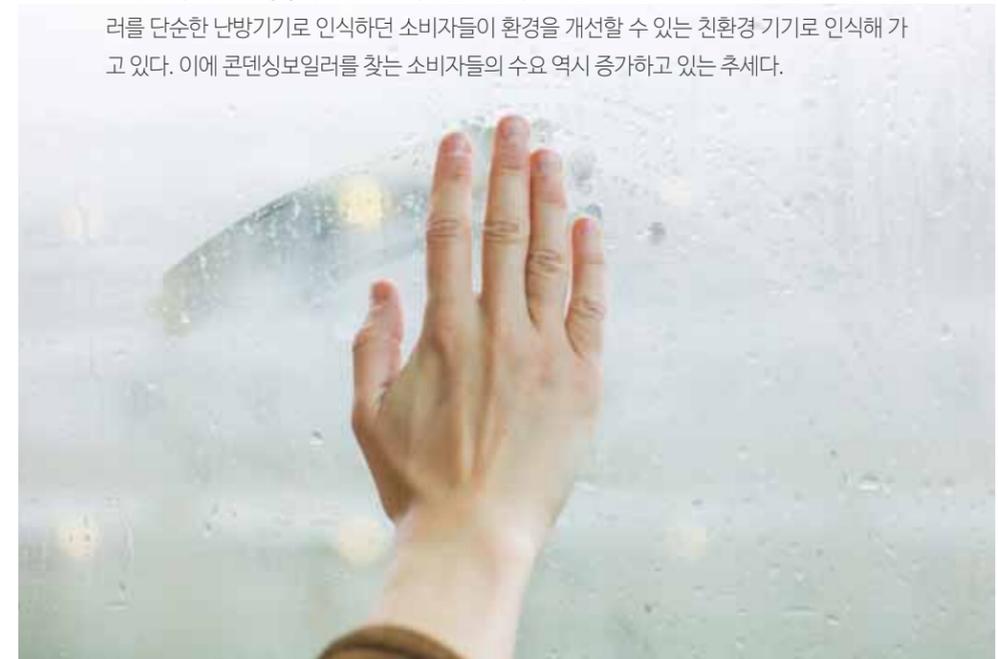
‘뻥’하지만 ‘fun’한 보일러 이야기

어떤 물을 사먹을까? 제주도 해안가의 용천수부터 태평양의 섬 피지의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생수까지 다양한 수원과 브랜드의 생수가 소비자의 구미를 당긴다. 불과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다. 인간 삶의 필수조건임과 동시에 공공재로만 인식되었던 물을 처음으로 상품화 시킨 주인공은 바로 세계 1위의 생수 판매 기업 에비앙이다. 에비앙은 무려 130년 전 물을 상품화 시켜 판매한 최초의 기업이다.

물을 상품화 시킨 것도 모자라 소위 ‘대박’을 터트린 에비앙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기존 물에 대한 개념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한 것이다. 단순히 삶을 유지하고 갈증을 해소하는 ‘일상’의 개념에서 물을 ‘약’의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 물에 대한 ‘당연하고 뻥한’ 인식을 살짝 비튼 결과,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에비앙은 매출 4조가 넘는 세계적인 생수브랜드의 수원이자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물론 환경오염이나 기타 문제들로 인해 깨끗한 물의 수요 증가가 물의 상품화를 가속화 시켰지만, 그 시작이 무려 130년 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시도이자 신선한 발상이 분명하다.



단순한 난방 기구로 인식되어 주거공간 밖에서 우리를 묵묵히 지켜주던 보일러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은 오래 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특히 경동나비엔은 미세먼지의 개념조차 없던 30년 전부터 환경문제와 에너지고갈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예측해, 1988년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보일러를 개발했다. 이후 30년간 경동나비엔은 지속적으로 콘덴싱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경동나비엔의 노력에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이슈가 더해져, 이제는 보일러를 단순한 난방기기로 인식하던 소비자들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 기기로 인식해 가고 있다. 이에 콘덴싱보일러를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동나비엔의 이러한 노력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일러에 대한 '공간'의 개념을 새롭게 하기 위한 시도, 즉 보일러를 '실외'에서 '실내' 공간으로 옮기는 보일러 공간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있는 것. 실내공기를 데워 난방을 하는 유럽의 경우 보일러는 실내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유의 온돌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아궁이와 같은 난방기기가 실내가 아닌 실외에 설치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보일러 역시 당연히 '바깥'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현재도 보일러는 실제 거주공간이 아닌 별도의 다용도실이나 보일러실에 설치되고 있다. 보일러를 실내로 옮김으로써 파생되는 변화의 핵심은 '공간의 효율성 증대'이다. 즉, 보일러가 차지하던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나비엔 스마트 톡'이 보일러 제어에 대한 공간의 개념을 바꿔 놓았다면, 새롭게 출시한 'NCB760'은 나아가 설치 공간에 대한 개념을 바꾸기 시작한다. 'NCB760'은 보일러가 실내에 설치되는 유럽식 보일러를 지향하는 모델로, 저소음 송풍기와 다중 방음 설계를 적용한 소음 흡수 설계를 통해 기존 보일러 대비 최대 11%의 소음을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유려한 외관 및 온도조절기 디자인으로 실내 적용의 이질감을 줄이고, 온도조절기를 통해 실내에서도 가스사용량 확인이 가능해 보일러 작동부터 관리까지 실내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보일러를 실내 공간으로 옮겨 소비자들의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라이프를 책임지고자 하는 경동나비엔의 노력은 현재 진행 중이다.

눈뜨면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고 빠르게 트렌드가 변화하는 시대, 오히려 기존의 것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가치에 사람들은 더욱 열광한다. 영국의 다이슨은 청소기에서 인테리어적 가치를 발견, 멋진 디자인을 청소기에 입힘으로써 단순한 청소도구로 여겨지던 청소기를 신혼 부부 선물 1순위의 매력적인 인테리어 소품으로 진화시켰다. 고가임에도 '뻔했던' 청소기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소비자들이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이유다. 경동나비엔을 통해 보일러 역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색다른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 단순 난방기기에서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기기로, 이제는 실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인테리어 요소로, 지극히 변하게 생각했던 보일러가 시나브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연 그 다음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기대가 된다.



가을을 맞이하는 자세 ○

‘가을 만개’ 인테리어 소품

어느 새 차게 식은 공기가 얼굴에 와 닿는다. 퇴근길에 느껴지는 바람이 더 상쾌하게 느껴진다. 구름 한 점 없이 높은 하늘을 한 번 바라보고 발길을 재촉해본다. 어제 막 새롭게 단장한 내 방에서 이 밤을 좀 더 오래 잡아두고 싶다.



실내 보온과 분위기 전환을 동시에, 러그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공기가 집안을 메운다. 이부자리에서 벗어나 발바닥 안으로 스며드는 찬 기운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내 아침을 깨운다. 러그는 카펫에 비해 작은 사이즈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을 막아주고 보일러로 따뜻해진 실내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준다. 플라스틱이나 PVC의 합성섬유 러그는 소재 특성상 컬러 표현이 명확해 공간에 포인트를 주기에 적당하다. 부드러운 퍼 소재의 러그는 먼지가 날리고 오염 물질이 깊숙이 박히기 쉬워 퍼 전용 브러시로 자주 빗어 관리하는 것이 좋다. 아이 방에는 세탁이 쉬운 코튼 러그를, 비교적 사용빈도가 적은 곳에는 천연 가죽을 가공한 송치 러그를 선택하는 것이 적당하다.



가을 바람에 대비하는 따뜻한 패브릭

패브릭은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주로 아늑한 공간을 연출하고 싶을 때 많이 쓰인다. 침실이나 소파 혹은 벽에 걸려 포스터로 사용되는 패브릭은 내추럴한 매력으로 공간에 따스함을 더한다. 경제적 부담이 적고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싱글족들에게 어필되는 장점 중 하나다. 포근한 느낌으로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에 더 잘 어울리며 주로 원목 가구와 함께 사용하면 그 매력이 배가된다. 패브릭은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오염이나 얼룩이 묻은 즉시, 중성세제를 묻힌 천으로 살살 닦아주어야 한다. 평소에는 극세사 천이나 짝 짝 천으로 먼지를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염분이 있는 음식은 패브릭이 갈라지는 원인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쾌쾌한 냄새가 남다면 베이킹 소다를 이용한다. 베이킹 소다를 뿌린 후 얼마 후에 청소기로 흡입해주면 냄새가 제거된다.



가을의 색을 담은 원목 가구

모던하고 심플한 인테리어가 인기를 끌면서 공간에 따뜻함을 자아내는 원목 가구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천연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이 돋보이는 원목 가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흔적이 덧씌워져 그 매력이 진해진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집안의 습도를 조절하는 원목 가구는 피톤치드를 분비해 건강에도 좋다. 원목은 통원목과 집성목으로 나뉘는데, 통원목은 목재를 통으로 잘라 사용하는 것으로 '우드슬랩'이라고도 불린다. 집성목은 재단한 목재를 최소한으로 가공해 여러 개를 모아 만든 것이다. 집성목 중 핑거조인트 방식의 원목 식탁은 작은 나무를 촘촘하게 연결해 접착제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친환경 접착제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왕이면 긴 결로 된 나무를 길이방향으로 붙인 솔리드 집성목을 추천한다.



경동나비엔 새TV CF On-Air



경동나비엔은 온수매트 성수기를 맞아 지난 9월 10일 새로운 TVC 캠페인을 선보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지태를 광고 모델로 활용한 이번 TVC 캠페인은 건강한 수면을 만드는 프리미엄 온수매트의 가치를 '온수의 힘을 믿으세요'라는 메시지를 통해 전달한다. 이번 광고는 정확한 온도제어와 함께 매트 좌우 온도를 1도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분리난방 기능으로 건강한 수면을 돕는 프리미엄 온수매트 나비엔 메이트의 쾌적함을 강조하였다.

경동나비엔, '201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참가



경동나비엔이 지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일산 KINTEX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가했다.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전시회다. 경동나비엔은 콘덴싱 보일러를 비롯해 다양한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기기와 신재생 에너지 기기, 온수매트 등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보일러 산업을 넘어 에너지와 생활환경을 책임지는 생활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는 경동나비엔의 면모를 선보였다.

경동나비엔, '코베 베이비페어' 참가



경동나비엔이 지난 9월 21일에서 2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된 코베 베이비페어에 참여했다. 경동나비엔이 이번에 전시한 '나비엔 메이트'는 좌우 스마트 분리난방 기능과 세계 최고수준의 온도제어 기술을 적용해 만든 프리미엄 온수매트이다. 또한 저온 화상을 예방하는 고온 모드 알림 기능과 아이의 안전을 고려한 차일드락 기능, 흡시 모를 세균 번식 걱정까지 잡은 살균 모드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을 구현해 아이와 함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이번 전시회에서 육아 필수품으로 주목 받았다.

14년 연속 '한국소비자웰빙지수(KS-WCI) 1위' 선정



경동나비엔 콘덴싱보일러 '나비엔 콘덴싱 스마트 토크(TOK)'이 '한국소비자웰빙지수(KS-WCI)'에 14년 연속 1위로 선정되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한 제품으로 소비자 편리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반 가스보일러 대비 최대 28.4%까지 가스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CO₂)는 물론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저감량이 큰 고효율 친환경 제품이다.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11년 연속 1위 선정



경동나비엔이 가스보일러, 콘덴싱 가스보일러, 온수매트 부문에서 한국품질만족지수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가스 보일러 부문에서 11년 연속, 콘덴싱 가스 보일러 부문에서 8년 이상 수상하며 업계 1위의 기술력을 자랑했다. 또한 프리미엄 온수매트 나비엔 메이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일러 온도제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제품으로 온수매트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로 선정되었다.

8년 연속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경동나비엔이 8년 연속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보일러 브랜드임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의 콘덴싱 보일러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줄이는 친환경 고효율의 보일러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경동나비엔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친환경 고효율의 콘덴싱보일러의 국내 보급을 주도함으로써 국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재단법인 늘푸른 '제14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개최



올해로 14회를 맞은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이 지난 8월 23일 시상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은 국내 조경인들의 최대 축제로 (사)한국조경학회 주도아래 재단법인 늘푸른, (사)한국조경사회, 월간 환경과 조경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본 행사는 조경전공 학생 및 조경 전문가를 비롯한 조경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올해는 '광장의 재발견'을 주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조명되어 왔던 광장에 대한 조경적 재해석을 담은 응모작을 모집하여 총 19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경동원 '제41회 MBC건축박람회' 참가 업계 선도하는 홈IoT 기술 선보여



경동원 네트워크사업부는 지난 8월 24일에서 27일까지 KINTEX에서 개최된 '제45회 MBC건축박람회'에 참가했다. MBC건축박람회는 건축산업분야의 최신제품들과 트렌드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 전시회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경동원 네트워크사업부는 IoT 허브 기능을 탑재한 다기능 비디오폰을 전시하여 뛰어난 IoT 기술력을 과시했다. 본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 신제품 나비엔 비디오폰(UHA-777)은 별도의 서버 구축 없이 스마트폰 APP으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무선 IoT 기기들과의 연동이 가능하다. 특히, 난방 전문 회사답게 온·습도 감지기를 통한 최적화된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이 가능하며 동체, 다목적 감지기의 연동을 통한 시큐리티 기능이 구현되어 된 제품으로 이번 전시회에서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경동원, 'IoT 이노베이션 어워드 2017' 스마트홈 혁신대상 수상



경동원이 스마트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아, 지난 7월 7일 'IoT 이노베이션 어워드 2017' 스마트홈 부문에서 혁신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IoT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와 인터넷 생태계 간의 균형 있는 조화를 견인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 최초의 IoT 분야의 시상식이다. 경동원은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홈 IoT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공로를 인정받아 스마트 홈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을 통해 높은 편의성은 물론 탁월한 에너지 절감 효과와 안전성까지 갖춘 경동원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경동원 세라텍사업부 'GreenBuild 2017 Korea Exhibition & Conference'에 연사로 참가



그린빌드 2017 코리아 국제 컨퍼런스 및 박람회
GREENBUILD 2017 KOREA Exhibition & Conference

지난 9월 28일, 경동원이 한국그린빌딩협회 외 5곳에서 주최하는 'GreenBuild 2017 Korea Exhibition & Conference'에 연사로 참가하였다.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친환경 건축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기술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에서 경동원은 '제로에너지시대 패시브건축의 역할' 세션에서 '퍼라이트 골조 FS(Fumed Silica)계 진공단열재 개발과 응용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진공단열재의 특성 및 퍼라이트 골조를 갖는 FS계 진공단열재 제조기술과 FS계 진공단열재 적용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강연으로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하우스를 향해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국내 법규에 따라 참여자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SNS EVENT



응모 방법

Step 1.

경동나비엔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과 친구 맺기!

Step 2.

자신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나비엔 매거진 인증샷 남기기 (#나비엔매거진 태그 필수!)

응모 기간 2017년 10월 1일 ~2017년 12월 10일

당첨자 경품 영화상품권 2매 (총 10명)

당첨자 발표 나비엔 매거진 겨울호 게재 및 SNS를 통한 개별연락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www.kdnavien.co.kr



경동나비엔 캐스케이드 시스템 대형 건물 난방 관리의 기준을 제시하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의 기술력에
대한민국 최초 통합(난방/급탕) 캐스케이드를 만들어낸 책임감이 더해져
대형 건물 난방 관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다

- 국가대표 보일러의 기술로 완성한 **제품력**
- 다양하고 풍부한 시공경험을 통한 **기술력**
- 설계부터 첨단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토털솔루션**
- 한 번 써본 고객은 다시 선택하게 되는 **높은 재구매율**



* 국내 보일러 제조사별 제품 매출액 1위 (2016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 국내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의 66.1% 차지 (2016년 한국 무역협회 자료 기준)

건축주가 찾는 시스템

- 에너지 절약 고효율 콘덴싱 기술 / 필요한 만큼만 운전하는 대수제어
- 유지관리 항상 법정관리자 불필요 / 일부 고장에도 운전 가능
- 쾌적성 향상 조용한 운전 / 순간급탕 방식 / 원격케어 시스템

건설사/설계사가 찾는 시스템

- EPC형 획득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 비례 및 다단계어 운전
- 투자비 절감 저렴한 장비 단가 / 설치공간 최소화
- 시공성 향상 이설 및 증설 용이 / 일체화 모듈 / PVC연도 적용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고객문의 1588-1144



콘덴싱이 올랐

우리 아버지는 콘덴싱으로 지구를 지켜요!



NCB 900
29년 콘덴싱 노하우로
북미를 사로잡은 프리미엄 보일러



NCB 760
안전과 소음을 한번에 잡은
유럽형 럭셔리 와이파이 콘덴싱 보일러

국내 보일러 제조사별 제품 매출액 순위(2016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국내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의 61% 차지(2016년 한국 무역협회 자료 기준)

[고객문의] 1588-1144